

[사회]

■ 신안 압해초교 매화분교 54년만에 첫 학생회장 뽑던 날

전교생 8명에 후보 4명 전자투표 주민들 박수갈채 속 '순박한 승부' 한가위 낙도 '웃음 보름달' 뜨다

개교 54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회장을 뽑는 신안군 압해도 압해초교 매화분교 교정은 21일 이른 아침부터 웃음꽃이 피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30분 만에 도착해 전자투표 장비를 설치하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지켜보며, 학생회장에 임후보한 4명의 후보자가 목소리를 기다리며 연설문을 외우고 있었다.

지난 1953년 개교한 압해분교에는 그동안 학생회장이 없었다. 2시간 30분만 걸으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섬인 매화도는 고작 127가구 22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매화분교 학생수도 해마다 10여명을 넘지 않아 그동안 학생회를 꾸리지 못한 것이다.



21일 신안 압해초등학교 매화분교 어린이들이 54년만의 학생회장 선거 투표에 앞서 터치스크린 투표 연습을 하고 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 이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설치, 어린이들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지원했다. /신안 압해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구가 적다 보니 현재 학생 수도 6학년까지 8명뿐이다. 1·5학년은 없고 2~3학년 3명이 한 학급, 4·6학년 5명이 한 학급이다.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6학년생 4명, 유권자도 후보자를 포함해 8명뿐이다.

후보자 가운데 예비투표를 통해 기호 1번을 차지한 최지훈(6년)군의 얼굴이 가장 밝았다. 든든한 지지 기반인 친동생들이 나란히 4학년, 2학년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당선이 무난하기 때문이다. 최군은 "5일에 한 번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른 후보들도 ▲태풍이 불면 마을을 청소하자 ▲TV를 그만 보고 책을 읽겠다 ▲매일 전교생과 30분씩 운동을 하자 ▲수업 시작 전에 30초씩 한바탕 웃는 시간을 만들겠다 등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

간혹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주머니에 숨겨둔 연설문을 풀러 꺼내보는 후보자들에게는 구경나온 학부모들과 마을주민 10여명이 격

려의 박수를 보냈다.

전자투표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권을 받아 터치 스크린에서 후보자를 고르면 된다. 유권자가 찍어 투표와 개표는 단 10분만인 오전 11시까지 모두 끝났다. 결과는 '투표 전날 동생만 때리지 않으면 무조건 된다'던 최군의 참패였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자"던 기호 2번 조대수(6년)군이 과반수인 4표를 얻어 학생회장이 된 것이다. 남은 표는 다른 후보자들이 1~2표씩 사이좋게 나눠가졌다.

하지만 우는 낙선자도, 좋아 우쭐거리는 당선자도 없었다. 인맥

과 조직을 동원하는 어른들의 선거가 아닌 패자도 승자도 모두가 행복한 낙도 어린이들이 펼친 54년만의 순박한 승부였기 때문이다. 당선된 조군은 졸업할 하는 내년 2월까지 매화분교의 첫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매화분교 김경순 분교장은 "입후보한 4명의 6학년이 졸업할 하면 매화분교 전교생은 4명만 남게 된다"며 "아이들이 내건 공약을 통해 매니페스토(manifesto) 교육을 통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매화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태풍 '나리' 피해 444억원 예비비 긴급지원 복구작업 탄력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가 21일 오전 현재 444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나서 피해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나리'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고흥과 보성, 화순, 완도, 순천, 여수에 모두 30억 원의 개산 예비비를 긴급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산예비비'는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피해 규모 및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태풍 '나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고흥 3억 원, 보성 2억 원, 순천과 장흥 각각 1억 원씩이다.

이들 지역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도로의 개통, 교량 및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지원과 주택 침수 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청소 활동 그리고 방역활동에 집중 투입된다.

한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는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지원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복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1일 현재 복구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총 3만 9천850명으로, 이 가운데 향토사단인 제31사단에서 2천55명의 부대원이 투입됐고 전남지방경찰청의 10개 중대 900명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또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3천425명과 소방공무원 2천426명 등 지금까지 연인원 9만8천900명이 태풍피해가 심한 고흥, 보성, 순천, 여수 등지의 복구 작업에 집중 투입됐다.

이날 현재 공공시설 응급복구 대상 706곳 가운데 73.5%인 519곳과, 비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은 1천871ha의 49.8%인 931ha가 복구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가벼운 귀성길 9월 22일 (음 8월 12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19~27℃
주요	구름 많음	20~26℃
여수	구름 많음	21~26℃
안동	구름 많음	20~27℃
대구	구름 많음	20~27℃
부산	구름 많음	19~28℃
울산	구름 많음	20~28℃
대전	구름 많음	20~27℃
충청	구름 많음	20~27℃
전주	구름 많음	20~28℃
전남	구름 많음	18~28℃
전북	구름 많음	18~28℃
경북	구름 많음	19~27℃
경남	구름 많음	19~27℃
충남	구름 많음	19~28℃
충북	구름 많음	19~27℃
강원	구름 많음	19~27℃
제주	구름 많음	20~2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9:13 썰물 < 04:33
여수 밀물 < 05:18 썰물 < 11:26

▲해돋이 06:20 ▲해질 18:30 ▲달돋이 15:50 ▲달질 00:46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최저/최고	18/29	18/28	17/28	17/27	18/27	17/26

'멧돼지와 전쟁' 때문에... 지리산 반달곰 '수난'

지리산 반달곰 곰이 '농민들과 멧돼지 간의 전쟁'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반달곰 '장강24'(암컷·3년생·사진)가 지난 13일 구례군 토지면 문수저수지 인근 밤나무과수원에서 울무에 걸려 있던 것을 구조, 응급처치 후 방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구조한 '장강24'의 목에서 울무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치료한 뒤 자연적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산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방사된 '장강24'는 평소 지리산 고지대에서 지냈으나 지난 1일부터 문수리 농가까지 내려와 먹이 활동을 펼치던 중 멧돼지 포획을 위해 설치한 울무에 목이 걸렸다.

반달곰수급의 수확기 피해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11월 4일 북한산 '장강21'이 밤나무과수원 인근에서 하반신이 울무에 걸려 치료 중 사망했으며 열흘 뒤에는 연해수산 '제석'이 하반신이 울무가 걸린 채 활동하는 것을 치료 후 재방사했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회수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울무와 밧 수거에 나서 ▲2005년 714개 ▲2006년 491개 ▲2007년에는 9월 현재 380개를 수거했지만 숨겨진 밧을 다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추석 연휴 보름달 뜨다

올 추석 연휴엔 가족들과 함께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22~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고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22일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추석 전날인 24일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특히 추석인 25일부터는 광주·전남지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휴기간의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22~26도)보다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또 "22일 오전 태풍 '위파'(WIPHA)에서 변질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낮아져 해상을 이용한 귀성길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로스쿨 개별 입학 정원 150명이하로 최종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능 6등급 이상 땀 대학 장학금 전액 지원

2009년 3월 첫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별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와 입학 정원을 규정하는 제5조와 제6조에서 로스쿨 설치 및 인가를 할 때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로 하도록 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수능 성적이 6등급 이상만 되면 대학 장학금 전액(국·공립대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사업을 마련, 총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1만8천47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생에게 대학 1학년 때 평균 429만원(내년 국공립대학 예상 평균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신운산복분자교

산매
신운산 복분자교

1.5L 2000원

1.5L 2500원

1.5L 3000원

1.5L 3500원

1.5L 4000원

1.5L 4500원

1.5L 5000원

1.5L 5500원

1.5L 6000원

1.5L 6500원

1.5L 7000원

1.5L 7500원

1.5L 8000원

1.5L 8500원

1.5L 9000원

1.5L 9500원

1.5L 10000원

1.5L 10500원

1.5L 11000원

1.5L 11500원

1.5L 12000원

1.5L 12500원

1.5L 13000원

1.5L 13500원

1.5L 14000원

1.5L 14500원

1.5L 15000원

1.5L 15500원

1.5L 16000원

1.5L 16500원

1.5L 17000원

1.5L 17500원

1.5L 18000원

1.5L 18500원

1.5L 19000원

1.5L 19500원

1.5L 20000원

1.5L 20500원

1.5L 21000원

1.5L 21500원

1.5L 22000원

1.5L 22500원

1.5L 23000원

1.5L 23500원

1.5L 24000원

1.5L 24500원

1.5L 25000원

1.5L 25500원

1.5L 26000원

1.5L 26500원

1.5L 27000원

1.5L 27500원

1.5L 28000원

1.5L 28500원

1.5L 29000원

1.5L 29500원

1.5L 30000원

1.5L 30500원

1.5L 31000원

1.5L 31500원

1.5L 32000원

1.5L 32500원

1.5L 33000원

1.5L 33500원

1.5L 34000원

1.5L 34500원

1.5L 35000원

1.5L 35500원

1.5L 36000원

1.5L 36500원

1.5L 37000원

1.5L 37500원

1.5L 38000원

1.5L 38500원

1.5L 39000원

1.5L 39500원

1.5L 40000원

1.5L 40500원

1.5L 41000원

1.5L 41500원

1.5L 42000원

1.5L 42500원

1.5L 43000원

1.5L 43500원

1.5L 44000원

1.5L 44500원

1.5L 45000원

1.5L 45500원

1.5L 46000원

1.5L 46500원

1.5L 47000원

1.5L 47500원

1.5L 48000원

1.5L 48500원

1.5L 49000원

1.5L 49500원

1.5L 50000원

1.5L 50500원

1.5L 51000원

1.5L 51500원